

2020년 11월 0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4편 2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26절)

◎ 찬 송 / 405장(통458) 주의 친절하 팔에 안기세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8~24절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 말씀선포 /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받느냐 아니면 취미로 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마추어보다 실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아마추어와 프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기대처능력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100%로 발휘하여 위기를 이겨내고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프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과 비 신앙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고난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인이건 비 신앙인이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고 위기가 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 고난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분명 고난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과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며,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뀌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오늘의 시간이 오히려 은혜요, 소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까?

1. 영적 전쟁이 기도가 됩니다.

- 사도바울은 앞에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믿는 자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과 앞으로 다가올 악한 날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기를 바랐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면에서 무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항상 깨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올려야 합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고 예민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이며, 다른 사람의 전쟁을 돕는 지원군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영적 전쟁이 없는 것처럼 거짓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2. 매임이 기도가 됩니다.

- 사도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그는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매임이 복음으로 인한 환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사명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낙심하지 않게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진짜 장애물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욱

전진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참된 성도로 살기에 매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우리를 우겨쌓고 매임을 주는 모든 것들 앞에서 더욱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런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3. 성도들의 아픔이 기도가 됩니다.

- 에베소서는 평안을 비는 인사로 마무리됩니다. 이 짧은 인사 속에 에베소교회를 걱정하는 사도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가 보기에는 에베소교회가 위로를 더욱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두기고를 보내고 자신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비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의 같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의 처지를 돌아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궁핍함, 자녀 문제, 흔들리는 믿음 등 다른 지체들이 겪는 아픔은 모두 기도 제목이 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의 아픔이 보입니다. 당사자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는 교제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에서 나오는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좌절하기가 쉽지만, 기도를 통해 임하는 위로는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으면, 고난이 소망의 자리가 되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애통이 소망의 기도가 되도록 나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아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45장(통502)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폐 회 / 주기도문